〈資 料〉

韓國 先史·原史遺蹟出土 漁具例(1)

崔 夢 龍

여기에 資料로서 紹介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先史時代부터 歷史時代 遺蹟에 이르기까지 흔히 發見할 수 있는 漁網錘를 包含한 몇 點의 漁具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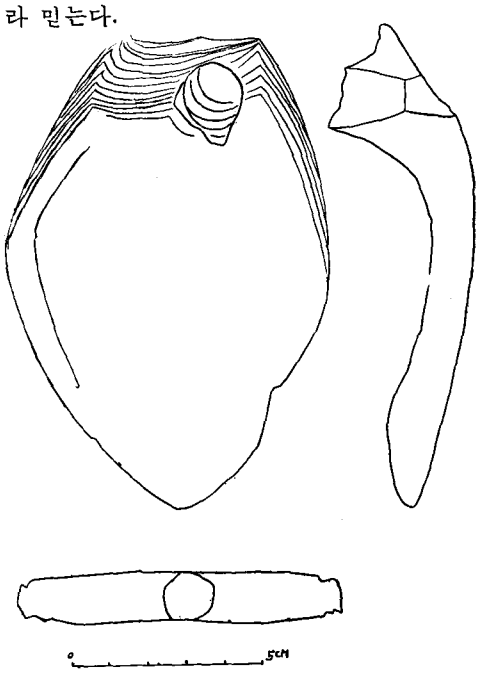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遺物들을 볼 때 伴出遺物이나 層位關係가 明確하지 않아 編年, 形式的인 差異, 用法等을 仔細히 모르고 막연히 漁網錘라 부르고 있는 實情이다.

그래서 筆者는 從來 古代 漁撈文化와 技術에 關心을 두어 資料를 모아 오기 始作하였는데 그중 여기에 몇 點 提示해 봄으로서 이 關係 硏究에 一助가 되리라 믿는다.

(1) 貝製漁具(圖面 1, 寫眞1)

釜山 直轄市 影島區 東三洞 貝塚옆 造場뒤 貝殼層에서 表面 採集한 것으로서 形態는 不定形 長楕圓形이며 學名上 Ostrea Denselamellsa Lischke의 토 굴이다.

寫眞 1 貝製漁具



圖面 1 貝製漁具

그러나 上部에 直徑 2cm의 精巧한 孔이 前面에서 後面을 向해 뚫려 있어 人工을 加한 痕蹟이 뚜렷이 보이는데 이것은 仁川 出土 石錘와 같은 形態를 보여[1] 重量을 다는 權石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 무게가 187g 밖에 안되어 前者의 550g과는 엄청난 差異가 나서 于先 漁具라고 斷定해 보며 끈에 매달아 물속에 집어 넣고 고기를 모으는데 使用된 漁具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러한 例는 우리나

1) 金元龍 "仁川出土의 石錘"—先史時代 有孔石錘에 對한 臆說,—歷史敎育 11. 12 合輯 1969. 4 p. 281

라에서 初出이기 때문에 그 以上의 推論은 禁하고 앞으로 많은 資料의 出土를 期待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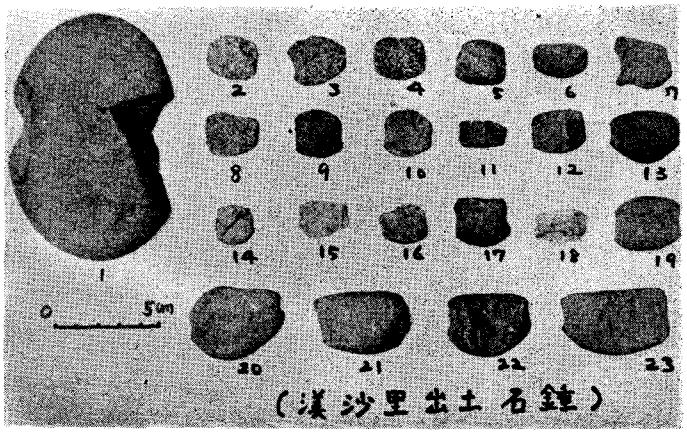
(2) 石製結合釣具 (圖面 1의 下, 寫眞 1의 右)

前者와 같이 東三洞貝塚出土로서 細粒長石質砂岩(Fine Grained Felspathic Sand Stone)을 精巧하게 갈아 長 8.6cm 斷面長徑 1.2cm 의 조그만 石棒의 形態를 이루고 있으며 끈을 매기 위하여 上下部의 兩側에 三條의 홈을 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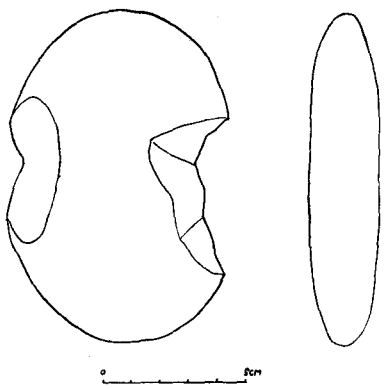
이런 例는 現在 延繩釣에서 닷돌 정(碇)과 같은 性質의 것으로 使用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日本 繩文時代出土의 例와 같이 結合釣具中 C類 稱名寺出土 擬擇型에 屬할 可能性[2] 이 많으며 다른 點은 前者가 骨製인 反面 여기 것은 石製라는 點이다. 만일 이것이 結合 釣具라면 그 當時 高度로 發達된 釣業技術의 一面을 보여 준다 하겠다.

(3) 漢沙里出土 石錘와 土錘

ⓐ 石錘 (圖面 2와 3, 寫眞 2)



寫眞 2 石錘



圖面 2 石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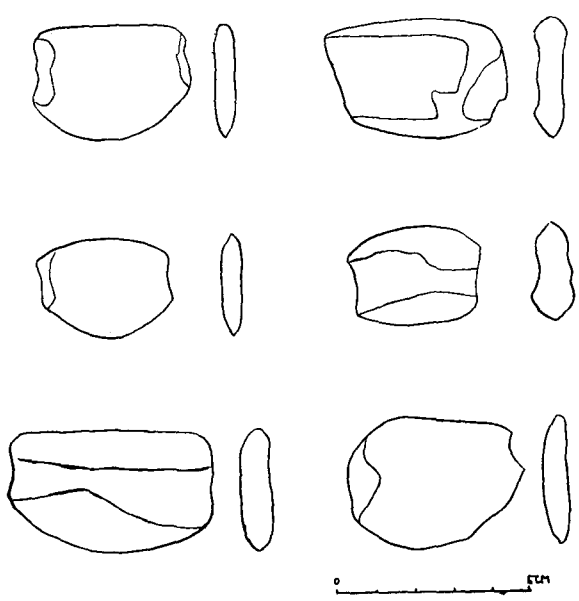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漢沙里 江岸 緩傾斜 地表面에서 發見한 것으로서 全部 23點인데 크기로 보아 大·中·小形의 세가지로 分類해 해볼 수 있다.

大形 (寫眞 2의 1, 圖面 2)은 長軸 11.5cm이며 끈에 매어 흘러 내리지 않도록 短軸의 兩側에 打擊을 加해 떼어 냈는데 이와같은 例는 서울 特別市 城東區 岩寺洞 江岸 遺蹟에서 發見된 石器 中에서 볼수 있는데[3] 이런 大形의 石錘의 무게는 372.5g 이나 되어 이것을 매어 달 수 있는 그물은 相當히 컷으리라 짐작이 되어 또 特殊한 魚種을 잡는데 使用되었을 것이다. 石質은 砂岩製.

中形(寫眞 2의 20~23, 圖面 3의 左2 例)은 長軸 4.5~5.2cm 內外가 되며 岩寺里[4], 江原道 高城郡 花津浦[5]等地에서 흔히 發見되는 扁平礫石의 兩側을 쪼아 만든 樣式이며 무게는 14g~17g 程度이며 石質은 砂岩, 變成 Shale 等이다.

---

2) 渡邊誠 "繩文文化時代に おける 釣針の 研究" 人類學雜誌 74卷 1號. 1966. p. 34의 圖 5의 5와 p.35
3) 國立서울大學校 博物館所藏品 377號
4) 金元龍 "岩寺里遺蹟의 土器·石器" 歷史學報 17. 18 合併號 1962. 6 p. 378
5) 崔淑卿 "花津浦 周邊의 土器·石器·支石墓" 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 7輯 1966. 10. p.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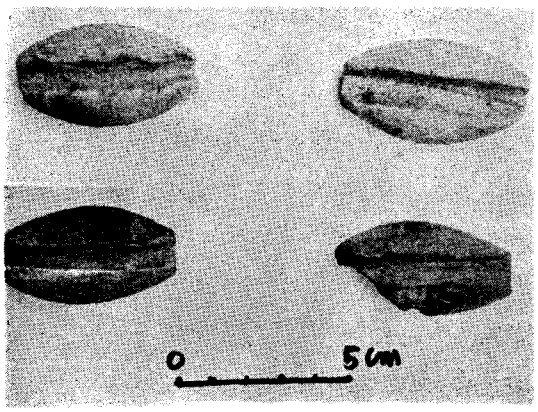


圖面 3 石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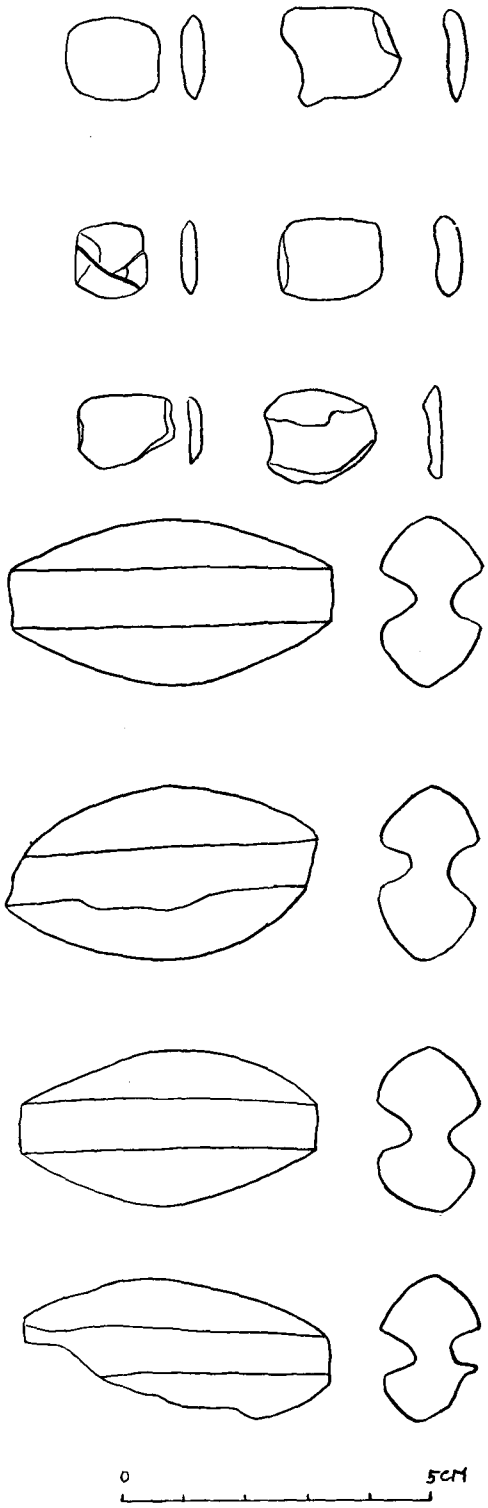
小形(寫眞 2의 19, 圖面의 2列)은 長軸 1.8cm 에서 2.6cm의 것으로 이제까지 發見된 것 中 類를 달리할 수 있는 極小形으로 特殊한 漁具에 使用된 것 같으며 浮標石으로 使用하기에는 물에 뜰 程度의 가벼운 것들은 아니다. 石質은 大部分이 砂岩, 閃錄岩, (Diorite) 變成 Shale 等이며 무게는 10g 未滿이다.

ⓑ 土製網錘 (寫眞 3, 圖面 4)

四點이 發見되었는데 모두 紅褐色으로 단단하게 구워 졌으며 兩端이 切斷된 長楕圓形의 兩側에 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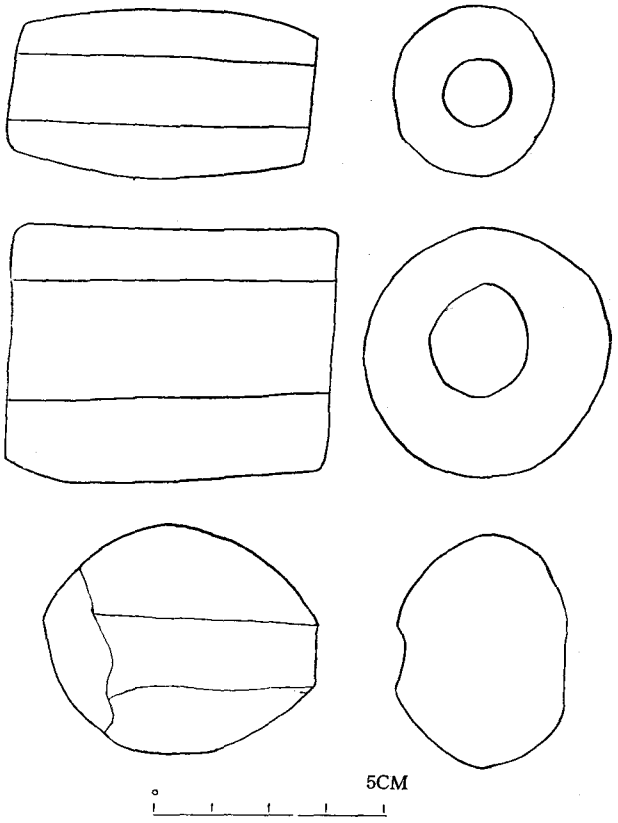
寫眞 3 土錘



圖面 4 石錘

은 縱溝를 판 것으로 橫斷面 八字形을 보이며 長 5.2cm, 4.9cm, 4.8cm, 5cm 가 되며 모두 5cm內外이다.

그런데 여기 渼沙里遺蹟에서는 石錘와 土錘의 두가지 形式이 出土하는데 여기 遺蹟에서 現在까지 알려진 文化는 礫石製 打製石器가 伴出하는 櫛文土器系文化[6]와 磨製石器·雷文土器가 出土하는 咸鏡道系 無文土器文化[7]가 存在하고 있어 錘가 時代的인 差異를 反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漁撈技術에 따른 使用例가 달라서 그런지 理解하기 힘들며 오직 伴出遺物·層位關係를 明確하게 區分해 줄 學術的인 發掘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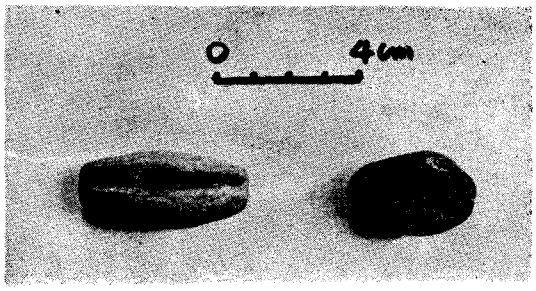
圖面 5 漁網錘

(4) 咸鏡北道 慶興郡 西水羅貝塚出土漁網錘(圖面 5의 下, 寫眞 4)는 同形에 가까운 楕圓形으로서 最長徑 5.8cm 무게 161g 을 보이며 表面에 약간씩 돌을 쪼개어 끈에 매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얕은 縱溝를 파놓았다. 그런데 이 遺物은 서울大學校 博物館所藏品 323號로서 伴出遺物은 磨製石器, 黑曜石製 打製石器等이며 土器類가 出土하지 않았지만 無文土器時代에 屬하는것 같다.

寫眞 4 漁網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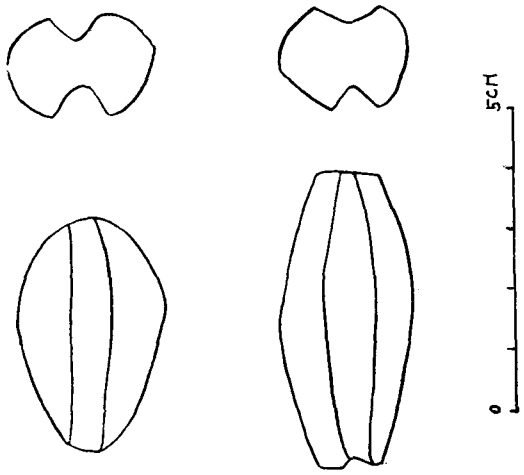
(5) 京畿道 富川郡 永宗面 반안리동(地圖名으로 반길안동)海岸 가 조그만 浦口(現在는 干潟地로 因해 海岸이 멀리 멀어져 있음)를 둘러싸고있는 朴承茂氏宅 뒷산 (標高 約 30m)에서 原史時代에 屬하는 貝塚이 發見되었는데 貝殼의 두께가 1m 以上이나 되는 比較的 큰 貝塚이다. 그속에서 遺物은 金海式土器 몇片과 土錘 2點이 發見 되었는데 (寫眞 5, 圖面 6) 그중 寫眞 左側 것은 보통 渼沙里等地의 先史遺蹟에서 發見되는 것과 같은 系統의 樣式으로서 兩端이 切斷된 長楕圓形의 兩側에 縱溝를 깊이 판 것으로서 橫斷面 八字形을 보이며 色調는 灰黑色이다. 長 4.9cm 또 寫眞 5의 右側 것은

6) 金元龍 "廣州 渼沙里櫛文土器文化" 歷史學 報14 1961. 4 pp. 133—145
7) 金鍾徹 "廣州 渼沙里 櫛文土器 遺蹟에 對한 小考" 韓國考古 1輯 1967 pp. 19—27



寫眞 5 土錘

거의 圓形에 가까운 楕圓形으로 前者와 달리 깊은 縱溝가 나 있으며 色調는 黑色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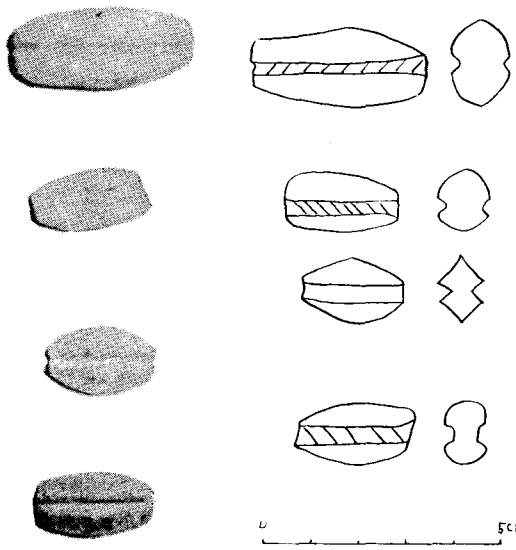
圖面 6 土錘

(6) 城東區 風納洞出土 灰青色 硬質陶製漁網錘(寫眞 6, 圖面 5의上)로서 完全히 三國時代에 屬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와같은 例는 이미 金廷鶴氏에 依해 報告가 되어있는데 어느 時代에 屬하는지에 對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다[8]

寫眞 6 漁網錘

遺物中 하나는 長 6.2cm 直徑 3.6cm 孔의 直徑 2.3cm 이며 다른 하나는 長 6.9cm 直徑 5.3cm 孔의 直徑 2.1cm 이다.

(7) 京畿道 楊州郡 八堂(寫眞 7의 上, 圖面 7의 上)과 馬峴里(寫眞 7의 아래 3點, 圖面 7) 出土로서 그들이 屬하는 時代는 伴出遺物로 보아 三國時代 以後의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形式 區分에 必要하여 함께 取扱하였다.



寫眞 7 土錘　　圖面 7 土錘

① 八堂出土 一例는 紅褐色 陶製로서 斷面 八字形이며 縱溝의 깊은 흠에 繩文이 나있다. 長 3.7cm

② 馬峴里出土 三例는 灰黑色이 2點 紅褐色이 1點이었는데 2點은 側面 縱溝 흠에 繩文이 나 있는 데 나머지 한 點은 없으며 또 斷面이 從來 보면 八字形이 아니라 角이 稅利하게 난 주판알의 斷面처럼 보인다. 長 2.4cm, 2.1cm, 2.3 cm 의 小形이다.

8) 金廷鶴 "韓國無文土器文化의 硏究" 白山學報 3號 1967. 12 圖版 20의 上